



살아있는 우리 역사·문화가 한눈에


글 김인순 전자신문 컴퓨터산업부 기자 insoon@etnews.co.kr

커뮤니티 등으로 꾸며졌다.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한국문화사와 서양사 개론을 공부할 수 있다. 한국문화사에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로 이어지는 한국의 선사시대의 콘텐츠를 얻을 수 있다. 서양사 개론에서는 인류문화의 기원과 진화, 탄생, 국가의 성립 등 19장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세계사 이야기 코너에서는 우리 나라와 중국, 일본, 미국의 문화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마을 공동체를 만든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젓갈의 문화와 역사, 조선족의 역사와 풍습을 느낄 수 있다. 일본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본 일본의 모습이 조명돼 있고,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을 이끌었던 황제와 환관들의 이야기도 알 수 있다. 개척자 정신으로 세계 강대국이 된 미국의 음식 문화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사극 바로보기란 코너가 눈길을 끈다. 사극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뒤집어 보는 것에서 여인천하와 불멸의 이순신 바로보기가 재재돼 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속 역사 이야기 분석도 재미있다. 잔다르크와 글루미스데이, 진주만, 장미의 이름, 안네의 일기 등 영화로 재조명된 역사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 얻을 수 없는 역사에 관한 상세 정보를 수록한 책들도 대거 소개했다. 역사 서적 리뷰에서는 치즈와 구더기,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대장장이와 연금술사 등 역사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책을 소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역사에서 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역을 답사할 수 있는 정보를 비롯해 그 지역의 사진을 먼저 보고 방문할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한 히스토피아 주니어에서는 현장답사와 역사 체험단 프로그램과 역사 탐방 자료실 등을 이용해 학습 교재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최 근 TV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과거의 영웅이다. 드라마뿐 아니라 영화에서도 역사 속 영웅의 이야기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역사 속의 숨은 영웅과 그들의 일대기를 다시 보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화나 TV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허구로 짜여진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재미는 배가된다. 영웅이 살았던 시대의 문화, 사회적 배경과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전후관계를 알고 있다면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학생들은 역사를 그저 따분한 오래된 이야기로 인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최근 우리 영토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면서 과거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분하게 배웠던 책 속의 역사를 인터넷을 통해 재미있게 배워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바로 **히스토피아**(<http://www.histopia.com>)다. 국내·외 역사 전문 사이트인 히스토피아는 갖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비롯해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교육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역사와 문화 △답사와 여행 △주니어 △스포토갤러리 △



글쓰는 송실대 정보통신공학과 졸업 후 한국전파신문을 거쳐 2001년 이후 전자신문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